

2024. 5. 10.(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9일 오후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b>담당 부서 :</b>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미래첨단교통과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국제교류과 (서울시-아부다비시 우호 결연)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WeGO 중동·북아프리카 사무소 개소식)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시-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MOU)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02-2133-2210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02-2133-4950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02-2133-8547
	투자유치팀장	김윤정	02-2133-4760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02-2133-5260
	유럽팀장	이은영	02-2133-5284
	디지털정책담당관	김인숙	02-2133-2910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이우종	02-2133-2912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02-2133-2510
	문화정책팀장	김정은	02-2133-2512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 11쪽		

## 오세훈 시장,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AIM)서 '민생중심 첨단교통 혁신' 발표

-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등 새로운 지향점 제시
- 서울시, 아부다비와 우호도시 MOU 체결(중동 국가 중 4번째)... 교류 체계 구축·상호 발전 도모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개소...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
- 서울시-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 문화교류 확대 업무협약 체결...양국 문화 전파 위한 가교 역할 수행

오세훈 시장이 8일(수)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

(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되었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26 민생 최우선 첨단 교통 혁신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①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 먼저, 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운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 서울의 대표적 미래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올해 10월 선보일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시간 경계와 공간 한계를 허무는 민생 맞춤형 서비스로 거듭난다.
  -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km) 구간을 달리고 있으며,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0월부터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버스다. 시는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25년 시범 도입을 시작해 ’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차량은 도시 안전 파수꾼으로도 활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의 시민 안전 자율차량을 ’26년까지 10대 운영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책임질 자율차량도 10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 <②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 서울시는 미래 교통의 핵심인 UAM 상용화 서비스로 ‘응급닥터 UAM’을 선보일 예정이다. ’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30년에는 응급의료뿐 아니라 긴급구조까지 그 범위를 넓혀 총 10대, 1,820억 원 규모의 공공의료와 재난구호 서비스 혁신까지 도모한다.
- 지금도 닥터헬기나 소방헬기가 긴급 이송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음과 환경영향, 공간적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 ‘응급닥터 UAM’은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해 적은 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대형건물, 학교 운동장 등 657개소의 도심 속 공간을 활용해 이·착륙이 이뤄질 경우 빠르게 닥터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향후 기체 개발 및 비행 승인 동향을 고려해 ‘응급닥터 UAM’을 정착시킬 예정이며, 시민 모두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형 병원 헬기장 활용 '응급닥터 UAM' 네트워크(안) >



- 이밖에 응급 차량 접근 시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등 응급 대응을 위한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해 소방차, 구급차 등이 혼잡한 도심에서도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마포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24년 긴급 신호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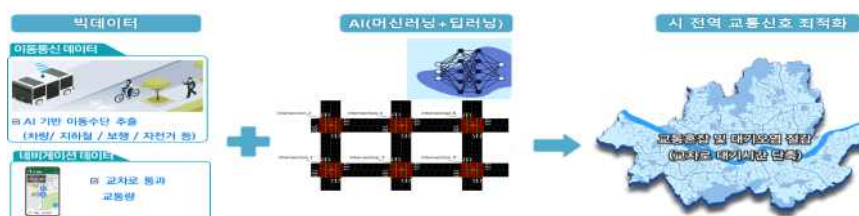
<③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정착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동행맵'의 3단계 서비스 고도화에도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 '서울동행맵'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행로 단차·경사를 고려한 길안내는 물론,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예약까지 가능한 교통약자 친화적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 올해 출시한 1단계 버전에서 나아가 2025년에는 학습형 AI 기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영상·이미지 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통해 저시력자를 포함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2단계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주변 시설물 정보(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화장실 등)와 길 안내, 대중교통 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고, 횡단보도 음향 안내기와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시는 리버버스부터 GTX, UAM 등 미래 교통수단까지 망라한 모든 대중 교통 인프라를 무장애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 만성적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교통흐름 30% 개선, 교통 사고 10% 절감'을 목표로 생성형 AI 기술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에 202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한다.
-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도로 위의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반복 학습을 거치는 교통신호 기술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혼잡 지역의 도로망 전체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5년 시범도입 후 효과 분석 등을 거쳐 '26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사장,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등에 무인 자동비행 드론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시는 사고 위험을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26년부터 단계적으로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또한 드론 영상으로 도로 과점용, 규정 위반 사항 등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빠르게 조치·관리해 더 나은 이동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오 시장은 첨단교통 혁신 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기후동행카드 ▲건물의 친환경 인증 체계 ▲정원도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시민에게 녹아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앞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자말 알 자르완(Jamal Al Jarwan) UAE 국제투자협의회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아부다비와 서울시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기업의 아부다비 진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 기조연설 후에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한국기업관을 찾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또한 중동 지역 투자유치와 진출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기업관에는 에너지, 의료, 뷰티, AI, IT, 콘텐츠 등 UAE에서 각광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 <서울시-아부다비시 우호 결연 체결>

-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2시<현지시간>, 아부다비 행정교통부(DMT, Department of Municipalities and Transport)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Mohamed Ali Al Shorafa)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는 아부다비를 구성하는 아부다비(Abu Dhabi), 알 아인(Al Ain), 알 다프라(Al Dhafra) 3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다.
- 서울시는 이번 아부다비와의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 스마트 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교류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우호도시 체결은 2023년 아부다비 지방자치교통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중동 국가 중 4번째이자 UAE 도시 중 처음으로 이뤄졌다.
- ※ 서울시-중동 국가 우호도시 체결 현황: 테헤란<sup>이란</sup>(2017), 무스카트<sup>오만</sup>(2018), 텔아비브<sup>이스라엘</sup>(2019)

### <WeGO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사무소 개소식>

- 이후 오 시장은 12시 30분<현지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 WeGO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각별히 힘써온 오 시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도시전자정부 시장포럼’에서 50개의 도시들과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현재 200여 개 회원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 WeGO 본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 대륙에 위치한 6개의 지역 사무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WeGO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을 지원한다.

\* WeGO 6개 지역사무소: 동아시아(중국 청두), 지중해(튀르키예 베이올루),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아부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콰도르 쿠엔카), 중동(UAE 아부다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알마티)

- 오 시장은 매력적인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가치를 함께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스마트도시 시정을 소개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스마트 라이프 워크’에 아부다비 대표단을 초청했다.

#### <서울시-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MOU>

- 이어서 오 시장은 16시 30분<현지시간> 서울과 아부다비 두 도시 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 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1996년 설립된 UAE와 중동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왕실의 두터운 신임과 후원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중동 최대 문화축제 ‘아부다비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중동에 알리고, 이슬람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그간 한국 문화와 예술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19년 아부다비 페스티벌’에 국립발레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



트라와 소프라노 조수미를 초청했으며 '25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아부다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양 도시의 박물관·미술관 간의 교류 전시 ▲양 도시의 후원을 받는 예술인 간 교류·협업 ▲서울시예술단과 UAE 예술 단체 간 상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과 중동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가교 역할에 나선다.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월, 아부다비 대표 클래식 음악축제인 <아부다비 클래식(Abu Dhabi Classics 2024)>에 참여한다.

□ 한편, 업무협약식에는 현 UAE 대통령의 외삼촌이자 아부다비 음악재단의 후원자인 셰이크 나흐얀 빈 무바라크 알 나흐얀(H.E. Sheikh Nahyan bin Mubarak Al Nahyan) 등이 자리하며, UAE 왕실에서도 아부다비와 서울 간 문화교류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례투자회의(AIM) 관련 담당 부서 연락처

담당 부서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미래첨단교통과 (이수진 과장 : 02-2133-4950)	민생맞춤 자율주행차	최종선 자율주행팀장	02-2133-4961
	응급닥터 UAM	유선 미래첨단교통팀 주무관	02-2133-4955
	서울동행맵	정창욱 미래첨단교통팀 주무관	02-2133-4958
	AI 및 드론 활용	최서윤 미래첨단교통팀 주무관	02-2133-4956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 : 02-2133-2450)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박성수 신호운영팀장	02-2133-2486

**□ 연례투자회의 개요**

- 행사명 : Annual Investment Summit(AIM)
- 일 시 : 5.7(화) ~ 5.9(목)
- 장 소 :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
- 주 최 : AIM Congress (AIM 조직위원회)
- 규 모 : '24년 13회차 / 175개국, 270개 부스, 1만313명 참가('23년 기준)
- 주요분야 : 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6개
  -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직접투자
  - FPI(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외국인간접투자
- 주요구성 : 개막식, 전문가 토론·세미나, 기업·도시별 부스 운영 등



2023년 개막식



2023년 미래도시분야 토론회